예술가들이 모여 살롱처럼 편안하게 얘기하고 오픈 네트워크로 작업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.

운영의 전반부는 예술가 집단이 하고 있다.

전시장의 벽에는 낙서와 이 공간이 예술가들에 점유되기 전에 새겨졌을 글자들이 있다.

전시는 기존 전시장의 구조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어 익숙하지만 공간이 하얀색이나 검은색으로 칠해지지 않았고 창문의 ‘쌀’글자도 그대로 남아 이질적이면서도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다.